

작품 개요

「한 밤에 양을 치는 자」는 합동 찬송가 113장에 있는 Nahum Tate(1652~1715)의 찬송가 가사로 작곡자가 34세 때인 1956년 12월 16일 작곡되었다(찬송가 제목에는 '목자에게 나타남'으로 되어 있다). 이 곡은 눅 2:8~12의 말씀을 6절로 된 운율시로 엮었는데, 나운영은 이것을 풀어 작곡하였다.

(아쉽게도 이 곡의 원보는 분실되어 여기에 소개하지 못합니다.)

작품 해설

아마 나운영의 성가독창곡 중 성악적으로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곡이다. 하지만 거의 불리지 않고 있다. 종소리의 울림을 피아노로 들려주며 시작하는 이 곡은 5음음계적 선율이 핵심이지만, 많은 반음계적 짧은 음들을 통해 색채감을 만든다. 성탄에 대한 기쁜 낭송이 많은 변박을 통해 표출된다.

- 홍정수, 한국교회음악사, 가온음, 2021 중에서 -